

 <p>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, Infrastructure and Transport</p> <p>마이홈 포털 www.myhome.go.kr</p> <p>마이홈 콜센터 1600-1004</p> <p>마이홈 상담센터 전국 36개소</p>	<h2>보도참고자료</h2>		 <p>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.</p>
	<p>배포일시</p>	<p>2016. 2. 16 (화) 총 1매 (본문 1)</p>	
<p>보도일시</p>		<p>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</p>	

## ‘공실률 10%미만이면 뉴스테이 건설사 지분매각 가능’

### 보도 관련

- 정부는 뉴스테이 임대 의무기간 중 건설사·재무적투자자 등의 지분 매각에 관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, 구체적인 매각시점이나 매각 요건 등은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
< 참고. 국토교통부 '16년 업무보고 “뉴스테이 민간투자 확대 유도” 중 >

- (투자리스크 완화) FI(재무적투자자)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주택도시보증금의 지분을 매입할 수 있게 하여 인허가·준공리스크 해소
- 투자자금의 조기회수를 위해 임대운영이 안정적인 사업장(예 : 낮은 공실률 등)은 임대기간중 지분매각도 허용

< 보도내용, 머니투데이, 2.16(화)자 >

- ‘공실률 10%미만이면 뉴스테이 건설사’ 지분매각 가능
  - 뉴스테이 참여 건설업체의 경우 임대 의무기간(8년)을 채우지 않아도 임대 후 일정기간 공실률 10%미만 조건을 만족할 경우 지분 매각 가능할 듯
  - 재무적투자자의 경우 준공 후 지분매각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방안 마련 중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 
국토교통부 뉴스테이정책과 김목진 사무관(☎ 044-201-447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